다시 하나됨의 하모니…진한 감동·깊은 울림 선사

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기념 '엘리야' 시연 현장 가보니

19일 예술의전당 대극장 제206회 정기연주회…나주·광양 합창단 협연
고난 속 꺾이지 않는 신념·희망 노래…전남광주 통합 미래 50년 새도약


오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엘리야' 무대를 준비하는 단원들이 시연을 하고 있다.

강렬한 피아노 선율 위로 묵직한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뭄과 저주를 선포하는 비장한 독창이 연습실을 채우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달 28일 광주예술의전당 시립합창단 소연습실에서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엘리야' 시연 현장.

임창은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50여명의 합창단원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주요 장면을 선보였다.

시연은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뭄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시작됐다. 낮고 묵직한 베이스 독창에 강렬한 피아노 반주가 더해지면서 비장한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어 16번곡에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시련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장면이 합창으로 펼쳐졌다. 피아노의 빠르고 강한 반주 위로 단원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쌓였다.

마지막으로 선보인 42번곡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시련이 끝난 뒤 미래를 향한 축복을 담은 환희의 노래가 연습실을 가득 채웠다. 서로 다른 성부가 차례로 등장해 하나의 화음으로 결합하는 푸가(Fugue) 형식의 합창은 웅장하면서도 섬세했다. 독일어 가사였지만 음악의 흐름만으로도 축복과 희망의 정서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날 시연된 '엘리야'는 독일 작곡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오라토리오로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꼽힌다. 바흐와 헨델의 대위법적 합창 구조에 낭만주의적 서정과 극적인 관현악 기법을 결합해 오페라에 버금가는 서사와 긴장감을 담아냈다.

작품은 가뭄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절규와 바알 예언자들과의 대결을 그린 1부, 이세벨 여왕의 박해로 광야를 헤매는 엘리야의 인간적 고뇌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환희를 노래한 2부로 구성된다.

이번 공연은 합창단 창단 50주년을 기념하는 제206회 정기연주회로,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1976년 시민합창단으로 출발한 합창단은 반세기 동안 지역 합창음악을 이끌어왔다. 이번 무대는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았다.

공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합창단을 중심으로 광양시립합창단과 나주시립합창단이 참여해 180여명 규모의 대합창 무대를 꾸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도 협연에 나선다.

주인공 엘리야 역은 세계적인 베이스 사무엘 윤이 맡는다. 소프라노 이윤경, 알토 임지현, 테너 진철민이 함께해 작품의 극적인 서사를 이끌어간다.

임창은 예술감독은 "오라토리오 '엘리야'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과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지난 50년 동안 끊임없는 도전으로 음악적 지평을 넓혀온 합창단의 여정과 닮아 있다"며 "지역 시립합창단들이 하나가 돼 빚어내는 웅장한 울림을 통해 단체의 위상을 각인시키고 시민 모두에게 자부심과 벅찬 감동을 전하는 역사적인 무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며, 예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예스24 티켓에서 가능하다. /오복 기자

"합창으로 행복해지는 도시 꿈꿔"

내년 7월 통합 1주년 전남광주 6개 시립합창단 연합무대 계획

임창은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전남광주시민들이 합창으로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창단 50주년을 맞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합창단의 임창은 예술감독은 향후 50년의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합창문화'를 제시했다.

지난 28일 창단 50주년 기념공연 '엘리야'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임 감독은 합창단이 전문 연주단체로서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춘천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할 당시 기획해 정착시킨 합창 페스티벌을 사례로 들면서 "광주에만 200여개의 아마추어 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노래하고 즐길 수 있는 합창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민합창단 구성과 합창 버스킹, 지역 합창축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 시점 전남권 시립합창단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내년 7월 통합 1주년을 맞아 광주·나주·순천·광양·목포·여수 등 6개 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연합무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창단의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에 대한 포부와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그는 "실력을 인정받아 해외 합창축제 등 참여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시립예술단은 2023년부터 문화예산 문제로 교류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합창단들과 교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감독은 창단 5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음악적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악을 선사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50년은 시민들이 함께 노래하고 합창의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복 기자

구름 미학에 투영된 내면의 기억, 감정의 층위

'구름작가' 강운 'Operation Cloud'展, 내달 12일까지 청담동 갤러리 써저리…6년 만의 국내 상업갤러리 개인전



구름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감정의 층위를 탐색해 온 강운 작가가 6년 만에 국내 상업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사진)

강운 작가는 오는 12월12일까지 서울 청담동 갤러리 써저리(대표 김승민)에서 개인전 'Operation Cloud'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6년간 국공립·사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비상업 전시를 이어온 강운 작가가 국내 컬렉터들에게 다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 제목 'Operation Cloud'에서 'Operation'은 '수술'과 '작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정밀한 절개와 통제를 연상시키는 'Operation'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물질적 존재인 'Cloud'를 결합해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개념이 만들어내는 긴장을 담았으며 '예술은 영혼을 위한 수술'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 갤러리 써저리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강운 작가는 '수술'은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층들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 행위의 은유라고 설명한다.

그는 "구름을 수술한다는 것은 내면에 축적된 기억과 감정, 상처를 들여다보고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며 "작품에서 구름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닌 마음의 상태를 담아내는 매개체다. 색 역시 그 안에 쌓인 기억과 감정의 층위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강운은 1998년 성곡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와 일본 순회전 '보이지 않는 경계-변모하는 아시아미술', 2009년 제4회 프라하 비엔날레 등에 참여했으며, 2017년에는 프랑스 파리 프랑수아 리비넥 갤러리에서 개인전 'Sky, Touch the Air'를 개최, 지난 10월에는 36년간의 작업 세계를 조망한 사비나미술관 개인전 '색으로 태어나다'를 마무리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오복 기자

